

# '23년 3월 시청자위원회 운영실적

방송사명 : 광주문화방송

## 1. 회의개최

연 번	일 시	장 소	참석인원				회의형태		
			시청자 위원 (참석인원/ 총인원)	방송사		총 인원 (명)	대면	온라인	서면
				경영진 (명)	경영진 외(명)				
1	3.15	회의실	9/12	4	1	14	○	-	-

### o 회의 참석자 명단

① 시청자위원 명단 : 곽선희·김영신·노동일·송경용·심상돈·오광호·이상길·조경완·최정욱

### ② 방송국 관계자 명단

- 경영진(대표(사장), 제작 및 편성부서 국실장급 또는 이에 준하는 직급) : -김낙곤(사장), 윤근수(경영인프라본부장), 백재훈(편성제작팀장), 이계상(시사보도본부장)

- 경영진 외 : -황형철(경영심의팀 차장)

## 2. 심의결과 및 조치현황

가. 의견제시(시정요구) 및 시청자권익보호 등의 논의 안건(건수)

방송 편성	방송프로그램					자체 심의규정	합계
	보도	교양	연예·오락 (스포츠)	기타	소계		
0	2	6	0	2	10	0	10

나. 사업자 반영(건수)

구 분	수 용	의견참고	반 론	계
건 수	10	0	0	10

#### 다. 의견제시(시정요구)에 대한 조치내용

구분	의견제시(시정요구)내용	조치내용	제시월
보도	도시 공동화 현실 극복을 위한 내용 다뤄 주길 바람	-<뉴스투데이> 걷는 관광지를 지향 한다(3.21), <뉴스데스크> ‘모두를 위한 도시’ 선정(3.20) 등 보도 조치	'23.3.
"	토론 프로그램 검은 배경화면, 좀 더 밝 은색으로 전환 의견제시	-보도 책임자, 담당 PD 의견 전달 -<시사 용광로> 세트 개선 조치 (3.24)	"
교양	특집다큐멘터리 <우정>과 같은 프로그램 에서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방송 필요	-편성 책임자, 담당 PD 의견 전달 및 향후 제작 시 권고 조치(3.20)	"
"	<본방을 보자> 중인 노래방, 화질 및 음 질이 매끄럽지 못했음	-편성 책임자, 담당 PD 의견 전달 및 제작 시 유의 권고 조치(3.20)	"
"	<광주MBC 보다>, 안전장치 없이 들판에 서 인터뷰 모습 위험해 보였음	-편성 책임자, 담당 PD 의견 전달 및 제작 시 유의 권고 조치(3.20)	"
"	<레드디쉬>, 일본의 스케모노 소개는 지 루하게 느껴짐	-편성 책임자, 담당 PD 의견 전달 조치(3.20)	"
"	<레드디쉬>, 김치와 비슷한 현지 음식을 비교할 수 없는 점 아쉬움	-편성 책임자, 담당 PD 의견 전달 조치(3.20)	"
"	<1분 건강정보> 출연 의사에 대한 다양 한 검토 필요	-편성 책임자, 담당 PD 의견 전달 및 제작 시 의견 반영 권고 조치 (3.20)	"
기타	어린이 직업체험 테마파크 체험 부스 광 고면에 유튜브 뉴스 채널 게시를 통한 유 튜브 접근 확대 기대	-해당 업체에 요청 조치(3.29)	"
"	홈페이지 다시 보기 게시판에서 틀린 맞 춤법 수정 필요	-오자 수정 조치(3.16)	"
총 건수		10건	

#### 라. 시청자 권익보호와 침해구제

요 청 내 용	조 치 내 용	조치일자	비고
해당 사항 없음			

#### 마. 시청자평가원 선임 현황

(임기: 2000.0 ~ 2000.0)

성명	생년월일	전·현직	변동사유	비고 (임기)
해당 사항 없음				

### 3. 기타사항

가. 시청자위원회 회의록 공개 사항

- 홈페이지에 전문 공개

나. 상시의견수렴 실적

상시의견수렴방법	내용
해당 사항 없음	

## 당월 시청자위원회의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에 대한 답변

구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고		
			수용	참고	반론
보도	도시 공동화 현실 극복을 위한 내용 다뤄주길 바람	인구 유출로 인한 도심 공동화 현상의 단면을 볼 수 있는 총장로 상권의 쇠락을 보도한 바 있으며, AI 반도체 산업단지 육성·미래차 국가산단 등 인구 유입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정책 등을 지속해서 보도하겠습니다	○		
"	토론 프로그램 검은 배경화면, 좀 더 밝은색으로 전환 의견 제시	토론에 참석하는 패널에 대한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 검은 배경화면을 사용하고 있음. 세트의 전면적인 개편이 어려운 상황이어서 조명 등을 활용해 좀 더 밝은 느낌으로 변화를 줄 예정입니다	○		
교양	특집다큐멘터리 <우정>과 같은 프로그램에서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방송 필요	필요성 공감하며, 다음 제작 시 참고하겠습니다	○		
"	<본방을 보자> 줌인 노래방, 화질 및 음질이 매끄럽지 못했음	출연자가 노트북이나 모바일 환경에서 라이브로 진행하기 때문에 발생	○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수용	참 고	반 론
		하나, 사전 연습을 통해 오류 없도록 하겠음			
"	<광주MBC 보다>, 안전장치 없이 들판에서 인터뷰 모습 위험해 보였음	촬영 시 주의하도록 하겠음	○		
"	<레드디쉬>, 일본의 스케모노 소개는 지루하게 느껴짐	제작진에게 의견 전달하고 향후 유사 프로그램 제작 시 유의하겠음	○		
"	<레드디쉬>, 김치와 비슷한 현지 음식을 비교할 수 없는 점 아쉬움	제작진에게 의견 전달하고 향후 유사 프로그램 제작 시 유의하겠음	○		
"	<1분 건강정보> 출연 의사에 대한 다양한 검토 필요	공신력이 있는 의료기관인지 신중하게 검토하겠음	○		
기타	어린이 직업체험 테마파크 체험 부스 광고면에 유튜브 뉴스 채널 게시를 통한 유튜브 접근 확대 기대	반영하도록 요청하겠음	○		
"	홈페이지 다시 보기 게시판에서 틀린 맞춤법 수정 필요	즉시 수정하고, 게시물 게시 시 자세히 살펴보겠음	○		

# 시청자위원회 회의록(2023년 3월)

일 시		2023. 3. 15. 수. 오후 5시	장 소	회의실
참석자	위원	곽선희, 김영신, 노동일, 송경용, 심상돈, 오광호, 이상길, 조경완, 최정욱(9명)		
	회사	김낙곤 사장, 윤근수 경영인프라본부장, 백재훈 편성제작팀장, 이계상 시사 보도본부장(4명)		

## ■ 회의 내용

- 조경완 위원장 : -존경하는 위원님, 다시 만나 뵙게 돼 반갑다. <솔로 하우스> 눈여겨봤다. <본방을 보자>에서도 느꼈는데 지역에 국한하지 않고 자유롭게 다루며 로컬리티를 강조해 좋았다. 위원님들이 성실하게 준비를 해오셨을 텐데 오늘도 활발히 의견 나누길 바란다.
- 김낙곤 사장 : -우리 지역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생수 100만 병 모으기 운동을 하고 있는데 전남 지사와 함께 물이 부족한 섬 지역에 보내겠다는 협약을 맺고 왔다. 지역에 발생한 문제를 해결해 보는 공영방송이 되고자 하고 있다. 널리 전파돼서 잘 되길 바라고, 지역을 위한 일을 해보기 위한 것이다. 물이 가장 부족한 시기에 맞춰서 지금부터 모금하는 것을 전달하고자 한다. 기업이나 출향 인사도 소개해 주시면 함께하도록 하겠다. 지난 한 해 동안 16개 지역 MBC에 대한 경영평가에서 A를 받았다. 위원님들께서 격려해주신 덕분이다.
- 조경완 위원장 : -출향 인사나 향우회를 비롯해 우리 위원회도 도와야겠다. 업무보고를 해달라.
- 백재훈 편성제작팀장 : -콘텐츠본부 보고드리겠다. 한국 김치의 우수성과 다양한 변주를 탐색한 UHD 다큐멘터리 <레드디쉬> 1~4부 방송했다. 1인 가구 비율 38% 시대다. 혼자 사는 사람들의 다양한 삶의 방식과 1인 생활공간에 대한 갖가지 이야기를 탐색한 OTT용 숏폼 다큐멘터리 <솔로 하우스>를 4부까지 방송한다. 1부 자신만의 솔로 하우스를 만든 사람들, 2부 나를 표현하는 '취미 하우스', 3부 따로 또 같이! 함께 만들어가는 솔로 하우스, 4부 로컬에서 찾은 나만의 공간이며, 지상파방송 후 OTT '왓챗'에 15분 총 12편 올리게 된다. RAPA 제작지원에 <한민족의 소리>가 선정됐다. 오리지널 국악인과 퓨전 소리꾼이 결합을 벌이고 귀 명창이 승부를 가리는 포맷이다. 타운홀 미팅 <지역민이 묻고 단체장이 답하다>가 김철우 보성군수, 이병오 담양군수, 김순호 구례군수 편이 5월까지 제작할 예정이다. 지역축제 개막에 따른 공연 프로그램을 제작한다. 4월 화순고인돌축제 기념 축하쇼, 5월 담양대나무축제 기념 축하쇼를 한다. <문화콘서트 난장> 녹화, 영산강 그란폰도 관련 제작을 준비 중이다.
- 이계상 시사보도본부장 : -여러 가지 보도를 했는데 의미 있게 소개할 만한 보도는 식수난 속에 벌어진 물난리 사고였다. 새는 물 잡아라 기획보도를 통해 덕남 정수장에서 물이 넘쳐 급수중단 사고 발생을 신속 보도했다. 막을 수 있었던 사고를 안이하게 대처한 광주시 행정을 비판했으며, 광주 상수도 행정 개선점을 지적하고 강원도 홍천까지 다녀와서 사례로 대안 제시했다. 계엄군의 5.18 묘역 참배에 대해 둘로 갈라진 광주 시민사회를 보도했으며, 일제 강제동원 피해 보상 관련해 정부 대책 비판 보도를 했다. 광주은행의 '과도한 이자 장사'를 비판 보도했다. '한국전력 농사용 전기 단속과정 무단 침입 및 비현실적 위약금 부과' 보도가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과 방송기자연합회 '이달의 방송기자상'을 수상했다. 주요 계획으로 광주·목포·여수MBC 3사 공동 제작 <시사용광로> 첫 방송을 준비 중이다. 지역 3사 기자들이 한데 뭉쳐 만드는 시사 토론 프로그램을 본격 시작하는 것이다. 3월 23일 목요일 21시 첫 방송 주제는 순천만 정원박람회와 전남 관광이다. 광주문화방송 빛가람센터 설립을 추진 중인데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에 취재센터를 마련한다. 광주MBC 뉴스 유튜브 채널 활성화 본격적으로 추진 중이며, 광주 뉴스 채널을 통해 '뉴스 스탠바이' 프로그램 준비, 뉴스에 담지 못한 이야기도 담고 뉴스 인물도 만나는 코너 등 활용, 유튜브 실시간 뉴스 제작 확대에 구독자도 확보하도록 노력 등 지속할 예정이다.
- 조경완 위원장 : -위원님 의견을 들겠다.

○ **곽선희 부위원장** : -<시사 온> 광주 AI 현주소 편을 봤다. 대화형 챗gpt 등장으로 인공지능 채팅, 애플리케이션에 관한 관심 가지게 된 것 같다. 김나운 시의원, 광재도 광주산업융합사업단장, 김나운 펠리카 대표 세 분의 대담을 통해 빠른 속도로 진화되어 가고 있는 인공지능의 현주소를 느꼈다. 플랫폼보다 엄청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 일상생활에서 상용화에 따른 활용 방향이 어떻게 전개되고 진화해갈지 불안하고 두렵기도 하다. 광주 중심 반도체 특화단지는 국가산업의 세계화가 목표라지만 AI 인공지능 집적 단지 AI 인프라 구축 등에 대한 기대와 지원이 잘될까 걱정도 된다. 미래 사업에 대한 불안은 크지만, 일상생활 상용화에 따른 활용 방향 및 24년 10월까지 완성이 목표이고, 140개 이상 4차 산업기업이 광주에 와 있다는 밝은 소식과 함께 인구유입 효과를 기대해 본다. 인구 유출로 인한 도시 공동화 현실 극복하도록 자주 다루었으면 한다.

-2023 광주교육 어떻게 가나? 주제로 이정선 교육감과 김진화 대표 서세진 학부모가 출연했다. 학력은 실력의 한 지표라는데 광주교육 현안과 광주 학생의 미래 교육에 대한 고민을 나누는 시간이어서 관심 가지게 되었다. 정부 교육 정책 중에서 온라인 학교, 빚고을 직업 교육 등은 전국에 4개밖에 없는데 광주에서 시행할 계획에 대한 기대감과 전문 디렉터 양성, 기후환경생태교육 방향은 긍정적으로 생각된다. 한국의 교육 정책은 끊임없는 시행착오의 연속인 것 같아 걱정된다. 그리고 주민과 함께 이용하는 생활 교육시설에 대한 기대감도 있다. 광주교육 변화를 위한 교육감의 여러 가지 비전 발표 중에서 초등학교 기초향상을 위해 1:1 멘토, 멘토링 제도 구상은 좋은 것 같다. 중고교 방과 후 수업을 위해 전담교사 배치, 자유학기제 전환 등은 좋은 정책이나 참여율, 만족도 얼마나 실효성 있을까 염려와 함께 시민과 함께하는 광주교육을 기대해 본다.

-<시사 온>에서 시민들의 관심이 높은 여러 내용을 다루는 것은 좋으나 늘 말씀드렸지만 무거운 내용이 많은데 배경까지 어두워 무겁다. 검은색 배경화면의 좀 더 밝은색 전환은 도저히 불가하신지 의견 다시 드려 본다.

-<본방을 보자>에서 3월 7일 뉴스본방은 강제동원 해법으로 일본 대신 강제동원 피해자보상 부분과 한미일 협력방안, 광주가뭄대책 들으면서 근본적 해결책 없어 답답했다. 지진 발생 시 지진 대피방법 보도는 가끔 필요할 것 같다. 3월 8일 뉴스본방에서는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 소개를 했다. 다양한 행사를 준비한 광주여대 학생들 기특하였고 빵과 장미의 의미소개도 좋았다. 월간 본술랭 가이드 편에서는 이탈리아식당, 스페인식당의 특색 있는 음식을 기대했었는데 시간 제약이 있어서인지 소개가 너무 짧아 아쉬웠고 식당의 다양한 다른 음식도 소개해 주셨으면 하는 아쉬운 부분 있었다. 3월 9일 뉴스본방에서는 광양매화축제장을 오가는 임시 왕복버스 운행을 소개했다. 전남 청년 부부 결혼 축하금 지원금 안내는 요즘 젊은이들의 결혼 기피 현상에 동기부여도 되는 것 같아 좋은 것 같다. 솔로 하우스는 집과 공간의 다양한 욕구 충족할 수 있어 좋으나 부작용으로 결혼 기피에 대한 합리적 부여가 될까 염려도 된다. 어르신들을 위한 솔로 하우스 장성 누리타운 소개는 다양한 시설 알려주는 의미 있는 소개인 것 같다. 줌인 노래방 코너에서는 줌인 노래방 자체 프로그램도 부담 없고 즐겁지만, 윤암동 이창준 학생 노래할 때 이창준 학생과 친구인 요한 학생의 몸동작과 제스처가 너무 귀엽고 재미있었다. 덕분에 한바탕 웃을 수 있어 즐거웠다.

○ **노동일 위원** : -40여 년 이상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요즘은 광주FC 대표이사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광주FC가 출발을 좋게 하고 있다. 그런데 고소 고발이 2개다. 오늘 저한테 또 고소가 하나 들어왔다. 이러니까 광주FC가 사랑을 못 받는다고 생각이 들었다. 시에서 감사반이 나와 있다. 지난 2, 3년을 보고 있다. 이번 감사는 제대로 해야 한다. 퇴직연금을 아직 한 번도 안 들어놓았다. 그동안 내용도 모르고 가지고 온 것만 사인하고 보내니까 돌아가는 걸 모른다. 대표이사가 새로 와서 희망을 품는다는 이야기를 한다. 퇴직연금으로 이번에 첫 달 사천사백만 원을 내야 한다. 오늘은 직원 4명을 청주FC로 출장 보냈다. 프로구단은 돈을 벌어야 한다. 프로구단이 시에서 준 것만 받고 운영할 수 없다. 중요한 것은 그런 프로정신이 없는 것이다. 서른세 번째 선수를 계약했다, 벌써 거의 돈이 다 들어갔다. 유소년축구를 육성하는 게 목표다.

○ **김영신 위원** : -<솔로하우스> 좋은 프로그램을 못 봤다. 내일 마지막 4부 본방송 사수하겠다. OTT도 챙겨보겠다. 주말에 아이들 데리고 화순에 있는 어린이 직업체험 테마파크에 가봤다. 직업체험 부스 중심에 광

주MBC가 있었다. 부스 중에서 가장 돋보이고 풍족했다. 광주MBC <뉴스데스크> 광고가 크게 설치돼 있는데, 유튜브로도 볼 수 있다는 문구가 들어가면 어땠을까. <뉴스데스크>를 TV로 보기보다는 유튜브로 볼 것이다. 이 문구를 추가해서 넣어두면 아이들도 흥미 있게 검색도 해보고, 쿼알코드를 넣어서 바로 볼 수 있게 한다면 어린이 구독자도 늘어날 것이다.

- 송경용 위원 : -<광주MBC 뉴스데스크> 영산강 물도 마신다는 보도를 봤다. 광주댐에 물이 부족해 물을 절약 시키기 위해 긴급재난문자도 많이 오고 방송도 많이 하고 있다. 광주 시민들이 아끼고 아껴서 하루 3만 톤을 절약해도 식수원 고갈 시기를 늦추기 위해 영산강 하천수까지 끌어다 식수로 사용해야 하는 상황까지 왔다. 영산강 물을 식수로 활용하는 것은 1972년 이후 처음이다. 심각함을 깨닫고 더 열심히 절약해야 한다는 정신을 보여준 방송이어서 좋았다.

-‘이대론 위험하다.. 첫 삽도 못 뜬 아이파크 철거’ 보도를 봤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작될 예정이었던 아이파크 아파트 철거 작업이 계속 미뤄지는 이유는 현대산업개발이 마련한 계획으로는 안전사고를 막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현대산업개발이 제출한 해체계획서와 안전관리계획서가 미흡하다고 판단돼 서구청의 최종 승인이 늦어지고 있다. 해체위원회 심의에선 벽을 뜯을 때 사용하는 굴착기의 작업 반경을 다시 고려하고, 콘크리트 상판의 강도를 확보하라는 등 2백 건의 가까운 지적사항들을 잘 보여줌으로써 답답해할 광주 시민들을 위해 아이파크 현 상황을 보여주는 영상이어서 좋았다.

-‘자고 일어나면 산불.. 빈번하고 크게 나는 이유는? 보도를 보니 매년 빠질 수 없는 산불재난이라 이런 뉴스를 볼 때마다 희생자가 또 나타날까 하는 생각에 마음이 아프다.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산이라는 비탈진 지형에 강풍까지 더해지면서 불은 더 크게 번지고 불은 더 잡기 어려워진다. 지난해 광주·전남 57건의 산불 중 절반 이상인 32건이 1월과 4월 사이에 발생했고, 올해는 벌써 33건이 발생했다. 이 시기 매일같이 산불이 몇 건 발생했는지, 불도 크게 나는 이유를 산림과학원이 실험을 통해서 보여주는 부분도 좋았고 제목을 의문형으로 만들어서 더 호기심을 유발하고 궁금하여 보고 싶은 뉴스가 된 거 같아서 좋았다.

- 심상돈 위원 : -<1분 건강정보>에 나오는 의사들의 치료에 관한 질 등을 볼 때 대부분 괜찮은 사람이 나온다. 가끔 보면 그렇지 않은 사람이 나오는데 그러면 다른 의료기관과 의사에 대한 평판을 깎아 먹는다. 출연자에 대한 다양한 검토가 필요하다.

-<레드디쉬>를 시청했다. 1부 어떤 발견 편에서는 한식의 종류가 어마어마하게 많으며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알 수 있었다. 김치의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가는 여정. 그리고 이 여정의 끝은 어디일까? 해남에서 진눈깨비가 내리는 날 김장을 하는 모습에서 진눈깨비가 김치소 양념을 버무리는 위로 살짝 내려앉은 영상이 너무 아름다웠다. 김치의 원형을 찾아가는 과정, 다양한 지역의 다양한 재료로 만든 다양한 김치, ‘우리는 우리의 김치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라는 물음이 아련하다. ‘그 지역에서는 왜 그 김치를 먹게 되었을까’라는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아가는 것이 어떤 발견일까? 여러 지역을 찾아가며 촬영한 고생이 아름다운 영상으로 나타났다. 2부 탐험 편은 김치에 대한 끝없는 고민과 생각으로 김치에 대한 고정관념을 다시 생각하게 했다. 김치에 대한 새로운 생각을 일깨워주는 영상이다. 산초가 고추가 들어오기 전부터 사용했던 향신료라는 것, 김치에 사용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각 지역에서 보고 느낀 ‘탐험’을 본인의 방식으로 다시 창조하는 셰프의 모습이 그간의 고생을 잘 정리했다. 3부 변주의 세계 편에서는 김치와 비슷한 외국의 음식을 찾아가는 여정을 아름답게 표현했다. 독일의 사우어크라우트를 소개할 때 이원일 셰프의 감질나는 설명이 잘 어우러진 여정이었다. 일본의 츠케모노를 소개할 때는 집에서 만드는 것, 사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맛이라는 설명이 있었다. 북한은 김치가 반 식량이다. 6개월 동안 먹어야 한다. 먹을 것이 풍족하지 않아 밥상에서 절대적인 역할을 한다는 북한 김치는 웬지 짠한 느낌이 있었다. 하지만 이원일 셰프의 맛깔나게 먹는 장면이 짠한 느낌을 확 가시게 했다. 중국의 파오차이, 짜차이에 대한 설명에서는 ‘아는 맛이 무섭다’라는 표현이 참 맛깔스러웠다. 후반부 셰프의 요리와 함께 한국 사람들만을 위한 김치가 아닌 전 세계의 사람들이 이해하는 김치의 맛을 내려고 했다는 셰프의 설명과 모든 음식을 발효할 수 있는 재료의 다양함으로 마무리하는 김치 변주의 세계에 대한 여정이 차분하게 정리되는 느낌이 좋았다. 촬영 시기가 코로나 19의 상황이 끝나지 않는 시기여서 김치와 비

슷한 현지의 음식을 현장에서 우리의 김치와 비교할 수 없었다는 점이 아쉬웠다. 각 나라의 음식을 소개하는 분량의 차이로 일본의 츠키모노의 소개가 조금은 지루하게 느껴졌다.

- 오광호 위원 : -<광주MBC 보자>를 시청했다. 동물원이나 다큐멘터리에서 불법한 독수리 떼를 울산 하늘에서 수십 마리씩 볼 수 있다는 점이 새로웠다. 독수리 후원의 집까지 운영하며 독수리들에게 먹이를 주고, 전깃줄에 걸려 다치거나 사람들이 버린 쓰레기를 먹어 상처 입은 독수리들을 구조 및 치료까지 해준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일 텐데 대단하다는 생각도 들었다. 다만, 머리 위로 수십 마리의 독수리들이 날아다니고, 주변에서 먹이를 쪼아먹고 있는데 바로 가까이에서 아무 안전장치 없이 들판에 앉아 인터뷰를 진행하는 모습이 다소 위험해 보이기도 했다. ‘나의 도시를 그리다. 어반스케치’ 프로그램에서는 도시의 풍경을 직접 보고 스케치하며, 동호회 활동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일상을 기록하고 추억할 수 있는 취미 생활로 좋을 것 같아 인상 깊게 보았다.

-<본방을 보자> 3월 9일 방송 ‘뉴스본방’ 코너에서 광양매화축제 관련 홍보를 해줬다. 코로나 이후 처음 열리는 매화축제로 관광객들이 많이 몰릴 것으로 예상하는데, 광주 터미널에서 직통 버스가 왕복 운행된다는 소식을 안내해주어 주말 나들이를 준비했던 관광객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다음으로 안내된 전라남도 청년 부부 결혼 축하금 지원 관련 내용도 상세히 설명해 줬는데, 지원요건 등이 정리된 자료화면이 같이 방영되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

-<솔로 하우스> 프로그램에서는 공동실버타운인 장성 누리타운의 모습을 방영해주었는데, 어르신들을 위한 안전하고 편안한 공동 주거공간이 마련되어 있어 좋아 보였다. 광주·전남 인근의 많은 어르신이 이러한 공동실버타운을 이용할 수 있도록 더욱 홍보가 되었으면 좋겠다.

- 이상길 위원 : -시청률 높이 나오고 흑자도 이뤄 광주MBC가 좋은 성과를 이루고 있는 것 같다. 공동실버타운 말씀해주신 것을 봤다. <본방을 보자>를 보니까 유익한 내용이 참 많다. 좋은 지역사회에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한다고 생각했다.

- 최정옥 위원 : -개인일정이 있어서 본방송을 시청하지 못하고 재방을 광주MBC 홈페이지에서 주로 보았는데 업로드가 늦게 될 때가 있었다. 또 2023년 2월 25일 “특집다큐멘터리 우정 1부 블라인드 메이트”가 띄어쓰기가 잘못되어서 “우정1 부블라인드 메이트”로 표기되어 있어서 무슨 말인지 한참을 고민했었다. 홈페이지는 회사의 얼굴이라고 생각한다. 꼼꼼하게 관리했으면 좋겠다.

-<본방을 보자>에서는 삼일절에 맞춰 양금덕 할머니에 대한 소개 및 강제노역 ‘제삼자 변제’에 대한 본방토크, 또 광주·전남 물 부족 시기에 물 대책에 대한 내용전달은 시기적절한 방송이어서 매우 유익했다. 목요일에 방송하는 줌인 노래방의 기술적인 부분은 보완이 필요한 것 같다. 3월 9일 방송에서도 화질 및 음질 문제로 연결이 매끄럽지 못했다.

-특집다큐멘터리 <우정> 1부 블라인드 메이트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 없는 사회를 위한 우정과 공존을 다뤄줘서 좋았다. 이런 방송만큼은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방송을 같이했으면 좋겠다.

- 조경완 위원장 : -오늘도 활발한 의견을 제시해줘 감사드린다. 이상으로 3월 시청자위원회를 마치겠다.

끝.